



주 제:	“예수님의 사랑”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08년 3월 16일
복음 묵상:	마태 26,14-27,66	이사 50,4-7	필리 2,6-11

오늘부터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성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와 용서를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다가도 어느 순간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더욱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나 자신을 질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 받게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희생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분의 희생에 감사하며 마음을 돌릴 때, 우리는 다가오는 부활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김성진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성가대 소식

- **일년중 가장 중요한 성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전례에 전심으로 참석하여 은혜속에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1. **성지주일:** 성지는 생명과 승리다. 평화의 상징이고, '호산나'란 구원하소서를 뜻하는 환호소리이다. 이날 축성한 성지를 각 가정에서 보관하는 것은 성지가 액운을 방지하고 하느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관습에서 왔다. 이는 신자들에게 믿음과 희망, 사랑을 가지라는 표시이다.
2. **성 월요일:** 라자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진 향액을 부은 내용(요한 12, 1-11)의 복음을 낭독한다. 예수께서는 그녀가 무의식 중에 당신의 장례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신다
3. **성 화요일:** 예수께서 배반당하실 것과 베드로가 모른다고 하리라는 것을 예고
4. **성 수요일:** 예수께서 빠스카 축제를 지키신 이야기
5. **성 목요일:** *주의 만찬 미사 *세족례 *현양 제대—성체 조배
6. **성 금요일:** 주의 수난을 기념하는 날로서 단식과 금욕으로 재를 지킴으로써 주의 죽으심의 신비 속에 더욱 참여한다. 이 날과 다음 날에는 오랜 관습에 따라 교회에서 성사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다. 십자가 경배
7. **성 토요일:** 망부활, 혹은 부활성야라고도 한다. 밤 미사에 영성체한 교우도 부활 본 날 영성체 할 수 있다. 전례에 참례하는 모든 교우는 초를 준비한다. *빛의 예식:새불과 부활초 축성

* 지난 수요일 주중 성가 연습에 모든 단원들 참여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지난 일요일(3/9) 김효식 (필립보 네리)형제님의 막내 지원(스레파노)가 San Francisco Symphony Youth Orchestra 주최한 Concerto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참석한 치열했던 2주에 걸친 경연대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가 우승을 하였으며, 이로써 오는 11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음악가들이 꿈에 그리는 San Francisco 의 Davies Symphony Hall 에서 바이올린 솔리스트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대 가족들을 모두 초청하였습니다.

기도 요청

- 최 주남 예로니모 형제님과 최효원 도미니카 자매님 부부 ; 3/14일부터 3/30 일 예정으로 유럽 성지 순례를 떠나셨습니다. 성지 순례중 주님과 만나 좋은 시간 가지시고 건강히 돌아 오시길 기도합니다.
- 안 영희 세실리아 자매님 5월 귀국 예정으로 한국 방문을 떠나셨습니다. 여행중에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복음 [마태 26,14-27,66]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 그때에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조롱하였다. ○ 또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걸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 오후 세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하였다. ○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였다. ○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1분 명상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려면’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려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짐으로써
주님의 권능과 은총을 체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